

**마음**

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일에 제법 익숙해 졌을 법도 하지만 해마다 찢찢매기는 매양 한 가지이다. 신정과 구정이 같은 달에 있는 탓인지 줄곧 어정쩡한 분위기의 연속이었다. 금년 설에는 조상님께 절을 올리며 부끄럽지 않은 각오를 약속 드릴려고 걱정했는데 뜻대로 되질 않는다. 신정에 끝마칠 일을 이핑게 저핑게 구실로 내세워 구정으로 미루었던 것이 잘못이었다. 결국은 자투리 생각 하나도 미처 정리하지 못하고 새해 첫 달을 소득없이 마냥 허송하고 말았다. 마음 한 구석에 구정 연휴를 마칠 때까지는 어떻게 든지 매듭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짐짓 조바심을 내기도 했다.

## 새로운 50년을 위하여

For The Next Five Decades

朴榮健 / (주)범중합건축사사무소  
by Park, Young-Kern

하기는 매사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놓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본 경험이 별로 없는 터에 새삼스레 부산을 떨기가 쑥스러운 구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제까지 모든일을 “감으로” 처리해 왔다는 말인데 그리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다. “좀 더 계획성 있게 살아 나가겠습니다.” 조상님께 드릴 말씀을 찾아냈으니 금년

할일은 다한 셈이다. 또 한마디가 있다. “일할때 열심히 일하고 쉴때는 폭 쉬겠습니다.” 당장의 처지를 살펴 본다면 앞으로 한 해동안 열심히 고민하며 온갖 난관을 헤쳐 나갈 일이 걱정이긴 해도 몇일동안 빈둥거리며 자기자신에게 조그만 적선을 베푼다고 해서 크게 잘못 될 일이 아닐 듯 싶다. 때로는 아무 생각없이 일을 하는 것보다 아무 생각없이 폭 쉬는 것도 얻을게 많다는 생각을 해본다.

새해 벽두부터 세상이 온통 뒤숭숭하다. 나라 안팎을 막론하고 조용한 구석이 없다. 위정자 나리들은 이제 국제적으로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했으니 생존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잔뜩 겁을 주고 있다. 국제화를 외쳐대더니 그것도 모자라 세계화를 추구하자고 야단들이다. 어떤 이는 지구화 운운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일은 이처럼 마구잡이로 뒤죽박죽을 만들어 놓으면서 시작해야만 되는 일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좀더 차분하게 한걸음 한걸음 나가면 안되는 일인가?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전열을 가다듬는다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이젠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내용을 충실하게 다지기에 앞서 형식만을 지나치게 차리는 듯한 느낌이다. 기왕의 조직을 통폐합해서 기구를 축소하고 인원을 줄여서 감량 경영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새로운 체제에 익숙해지고 근무환경이 안정될 때까지 쓸모없이 소모되는 에너지도 대단할 터이다. 무턱대고 나이

든 사람은 물러가라는 식의 인사정책에도 문제가 있다. 분야에 따라서는 오랫동안 쌓아온 경륜이나 경험을 통해 얻은 노련함이 절대로 필요한 경우도 있지 않은가? 개혁을 통해서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방법 이외에는 살길이 없다는 외침이 너무 크게 들려서 고막이 터질듯 하지만 진정한 의미는 알기가 어렵다.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현재 상황의 절심함을 피부로 느끼기에 앞서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사방을 둘러보기 마련인 현실이 너무나 이롭다. 선부터 실행에 앞서 폭넓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일의 올바른 순서이다. 그럴듯한 구호만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끌고 가려는 생각은 너무나 구태의연하다.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은 항상 슬기롭고 창의적인 면에서 뛰어나다는 평을 받아왔다고 했다. 그런데 왜 이 모양인가? 속이 모자라는 일본인 아래서 그들의 식민지 정책에 따라 맹목적으로 교육을 받아 철저히 세뇌당한 '과거의 지도자' 세대는 이제 다 물러나지 않았는가? 아직도 어느 구석엔가 일본인 특유의 모방 지향적인 융통성 없음을 전가의 보도로 살아 이 나라를 지배하려고 획책하는 무리가 남아있는가?

안으로만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향인 일본 열도가 심상치 않다. 로스앤젤레스에 지진이 났을 때 큰 피해를 본 미국인들을 비롯하며 자기네 같으면 아무런 염려가 없다고 큰소리치던 일이 엇그제인데 지금 일본인들은 코가 납작해졌다. 한국에서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하고 피해복구에 적극적으로 나설 뜻을 비치자 고맙지만 이번에는 사양하겠노라고 점잖게 나오더니 급기야는 구호물자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말았다. 이웃이 어려울 지경에 처해 있을 때 앞뒤 가릴 것 없이 도와 주는 것이 인자상정이다.

일본인들이 서른여섯 해 동안이나 이 나라 삼천리 금수강산을 일방적으로 강점한 채 반 만년을 이어온 겨레의 자존심을 마구 짓밟다가 이땅에서 쫓겨간 지 손해가 된다. 우리 민족이 어둠속에 갇혀 서른여섯 해를 보내고 나서 다시 빛을 찾은 지도 벌써 반 세기가 지났

다는 얘기다. 일제하에서의 쓰러린 과거는 그렇다치더라도 광복이후 오십년 동안 우리가 겪은 일들은 기구하기 짝이 없는 '사건'의 연속이었다. 이 와중에 동족상잔이라는 엄청난 비극을 거쳐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사회속에서 우리의 건축문화가 걸어온 길 또한 험난하기 짝이 없었다. 이 시대의 건축문화는 일제의 정책에 의해 우리의 전통건축과 연속성을 잃고 뿌리없는 사생이로서 주로 서양건축과의 접촉을 통해서 태어났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하겠다. 구한말 개화기로부터 일제침략기에 걸쳐 서양의 문화가 유입되는 과정에서 일부 교류가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서구의 건축을 접하게 되는 것은 8·15 광복이후라 할 수 있다. 그로부터 오십년 우리의 건축문화의 현 주소는 과연 어디쯤인가? 서양건축을 비판없이 받아들여 그대로 수용하거나 모방하는 것을 하나의 미덕 쯤으로 알고 지내던 시절도 있었다. 일본말로 번역된 서구건축을 서슴없이 우리말로 중역을 하는 오류를 범했던 시절도 있었다. 최근에 와서 신토불이라는 신조어와 함께 우리의 것을 주장하는 축이 생겨났으나 이 또한 외래의 변종이며 대부분 수입된 사고의 틀 속에서 생겨난 것이다. 50년의 세월속에서 많이 커지고 걸으려는 제법 어른스러워진 것은 사실이다. 우리사회가 강요하는 양적인 팽창은 줄 속을 낳았으며 부실을 자초한 것이다. 이제 그 댓가를 치름에 있어 성수대교의 붕괴로서 충분하다고 생각되며 제발 우리의 신 도시에서는 더이상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말았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다.

올해는 광복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서 여러가지 행사가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자칫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을 들을까 걱정이 된다. 과거의 업적에 집착하기 보다 좀더 성숙된 건축문화를 이루기 위한 지평을 여는 일이 중요하다. 작년에 서울 정도 육백년을 기념하여 벌린 일련의 사업들을 점검하여 공과를 따져보는 일도 필요한 일이다. 아울러 광복 일세기까지 앞으로 오십년동안 우리 건축계가 나아가야할 지표를 세우는 일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어야 될 것이다.